

## 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김 태 호 \*

- 
- I. 서론 및 문제의 제기
  - II.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
  - III. 역내 하부지역과 유사에 대한 함의
    - 1. 동남아시아/남중국해
    - 2. 대만해협/대만
    - 3. 동북아시아(동중국해/한반도)
  - VI. 결론 및 정책적 고려 사항
- 

## I. 서론 및 문제의 제기

중국의 부상은 이미 탈냉전기 아시아와 세계의 전략적 현실이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인하는데, 중국은 30년(1980~2009년) 간 연평균 9.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고,<sup>1)</sup> 세계 최대 규

---

\* 한림대학교 교수 겸 한림대만연구소 소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단, 중국의 경제성장은 최근 둔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10.4%, 2011년 9.3%, 2012년 7.8% 그리고 2013년 7.6%였다.

모의 외환보유고(약 3조 3,000억불)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자국의 외교적 위상 제고 및 군사력 강화의 재정적 기초가 되고 있음은 자명하나,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그 간의 관심은 “경제 >외교 >군사” 순(順)이었다.

단, 동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은 양날의 칼이다. 중국의 경제적 신장은 분명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나 군사적 모호성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정부와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평화적인 발전(和平發展) 및 양성(良性) 목표만을 추구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의 부상은 종종 역내 세력균형 전환의 전조(前兆)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다양한 영토·영해 분쟁에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입장에 대해 고압적 태도, 특히 최근 수년 간 공세적(assertive)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 또한 명백하다. 현재(2014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국, 그리고 최대 교역흑자 대상국이다. 예를 들어, 2013년 양국간 교역액은 2,289억불(2012년 2,151억불)이었고, 한국의 대중 교역흑자액은 무려 628억불(2012년 536억불)이었다.<sup>2)</sup> 또한, 동 기간 중 양국 간 인적 교류는 803만명(2012년 690만명), 한국의 대중 누적 투자액(신고기준)은 616억불(2012년 567억불)이다. 특히, 양국간 주당 항공편 수는 741회(2012년 837회) 이상으로서 이는 1일 약 106회(2012년 120회)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중국은 한국의 외교 및 안보상 매우 중요한 국가로서, 한국/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중요성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부상은 경제·외교·군사적으로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관리·대처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이로 인해 중국내외에서는 매우 다양한 정책적·학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다음 2가지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함의는 무엇인가? 2) 다른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 대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연구는 지리적으로 국한되어

2) 별도의 주(註)를 달지 않는 한,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 투자, 교류 통계는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있고, 경제, 외교 혹은 안보와 같은 특정 이슈-영역(issue-area)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대한 평가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sup>3)</sup>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해양안보적 함의를 국가 및 지역, 특히 하부지역(sub-regional)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정치적·지리적 다양성, 국내 이슈와 대외 환경 간의 연계성,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상이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안은 식별가능한 추이와 새로운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고의 I장 서론 외, II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III장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하부지역 및 유사 발생 가능지역별로 분류하였는데, 이에는 동남아시아(남사군도), 대만해협(대만), 그리고 동북아시아(동중국해와 한반도)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 및 미래의 한·중관계에 대비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격과 범위로 인해 몇 가지 사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지리적 범위는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나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예, 인도, 파키스탄)는 다루지 않고 있다. 둘째, 대만이슈이다. 대만은 분명 중국의 ‘주변국’이 아니나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군현대화의 추동요인(driver)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셋째, 분쟁지역의 명칭은 분쟁 당사국마다 호칭이 다르고, 또한 표기 순서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호칭과 표기 순서에 있어 본 연구는 국제적 관례를 따르

3) 예외적으로 다음 연구들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하부지역 전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Bruce A. Elleman, Stephen Kotkin, and Clive Schofield, eds., *Beijing's Power and China's Borders: Twenty Neighbors in Asia* (Armonk, NY: M.E. Sharpe, 2013); Edward N. Luttwak,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Andrew Scobell and Larry M. Wortzel, eds., *Shaping China's Security Environment: The Role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ctober 2006); and Eric A. McVadon, "The Chinese Military and the Peripheral States in the 21st Century: A Security Tour d'Horizon," in Larry M. Wortzel, ed., *The Chinese Armed Forces in the 21st Century*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ember 1999), pp. 7-87. 국문 자료로는 윤석준, "동남아·서남아·오세아니아의 전략적 딜레마와 해군력 현대화,"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편,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p. 241-96; 배정호·구재희 공편,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서울: 통일연구원, 2013) 및 배정호·구재희 공편,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서울: 통일연구원, 2012) 참조.

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 II.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동아시아 안보

동아시아는 현재 전 세계 총 GDP의 2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sup>4)</sup>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은 분명 동 지역의 안정에 대한 이해관계와 중요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토·영해 분쟁 관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중·일관계, 다자안보협력, 미군의 역내 주둔 지속 등에 달려 있다. 또한, 중국이 부상하고는 있으나 동아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변영하고는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의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미국과 중국 간 ‘능력경쟁’ 혹은 ‘영향력 경쟁’의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sup>5)</sup>

역내 안정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 동맹 네트워크 그리고 일련의 경제·안보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과 경제·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동아시아 세력(power) 구조의 변화를 낳을 수 있다. 많은 국내 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 그리고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모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sup>6)</sup> 동 이슈의 중요성으로 인해 ‘주도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간의 세력 전이(power transition) 가능성은 세계의 언론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정책 커뮤니티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강대국 정치의 논리, 중국

4) 지난 40년(1969~2009년) 간 세계의 총 GDP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2배로 증가한 반면, EU와 미국의 비중은 각각 30% 이하로 감소하였다. International Macroeconomic Data Se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0; Avery Goldstein and Edward D. Mansfield,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When Fighting Ends," *Global Asia*, Vol. 6, No. 2 (Summer 2011), p. 11, Figure 2에서 재인용.

5) ‘능력경쟁’은 맥데빗(Michael McDevitt) 제독 그리고 ‘영향력 경쟁’은 클린턴(Hillary R. Clinton) 미 국무장관의 표현이다.

6) 미국의 연방 적자와 국방비 자동삭감 계획이 향후 미국의 국방태세 및 제도의 ‘재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Washington, DC: DOD, 2014) 및 Peter W. Singer, "Separating Sequestration Facts from Fiction: Sequestration and What It Would Do for American Military Power, Asia, and the Flashpoint of Korea," September 23, 2012. 동 자료는 [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2/09/23-sequestration-defense-singer](http://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2/09/23-sequestration-defense-singer) 참조.

정치체제의 본질 그리고 역내 주요 영토·영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연루 등을 감안할 때, 역내 국가들은 중국이 어떻게 새로운 힘/능력(power)과 영향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당연히 우려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부상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세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현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 간의 입장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논의하지는 않겠다. 더욱이 “역사적 유추(parallels)는 본질적으로 부정확하다”고 키신저(Henry Kissinger)는 저서 『중국에 대하여』(On China)에서 밝히고 있다. 다만, 약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부상에 의해 발생했는가 아니면 독일의 행동(conduct), 즉 의도(intentions)에 의해 발생했는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지적한다. 1907년 영국 외교부 외교관이었던 크로우(Crowe)를 인용한 키신저는 “(부상이던 행동이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술회하고 있다. 키신저는 중요한 점은 객관적 위협으로서, “중국의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크로우 학파는 중국의 성공적인 ‘부상’과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의 미국의 입장은 양립할 수 없다(incompatible)”고 주장한다.<sup>7)</sup>

이 같은 판단은 현재 미·중 간의 ‘전략적 불신’에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 중국의 지도자들과 전략가들은 미국의 아·태전략 및 대중 정책의 핵심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하고, 이에 비해 미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 네트워크와 우방국과의 연계(linkage)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sup>8)</sup>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지역차원에서 ‘전략적 접근 대(對) 전략적 반접근 경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은 양측의 행동이 아닌 일방의 행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키신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세력(power)을 가능한 한 자국의 국경에서 멀리 밀어내려 하고 있고, 미 해군력의 범위를 제한하고, 국제외교에서 미국의 무게감(weight)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중국의 많은 주변국들을 조직하

7) 인용과 크로우 사례는 “Epilogue: Does History Repeat Itself? The Crowe Memorandum,” Henry Kissinger,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pp. 514-30, esp. pp. 518-20 참조.

8)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U.S. DOD, January 2012); Susan V. Lawrence and David MacDonald,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41108 (August 2, 2012), esp. pp. 8-15 참조.

여 중국의 압도(dominance)에 대처하려고 한다. [또한] 양측은 이념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양측간의] 상호작용은 역지와 선제(preemption)의 개념이 양측 간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고, 중국은 결정적인 심리적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머지 않아 어느 한 쪽이 오판(miscalculate)하게 되어 있다.<sup>9)</sup>

중국의 부상, 특히 군사적 측면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realpolitik)은 미 시카고大 교수인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에 의해 분명하게 개진되고 있는데, 그는 키신저와 유사한 가정하에, 군사력과는 달리 국가의 의도(intentions)는 변화할 수 있고 또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미어샤이머는 중국이 부상할 경우 “중국은 공격적인(aggressive) 의도를 갖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헤게몬(hegemon; 패권국)이 될 것”으로 단언하는데 이는 당연히 미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미국은 “(자신과 같은) 지역 헤게몬의 탄생”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sup>10)</sup>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협력과 갈등 측면을 연구한 미 프린스턴大 프리드버그(Aaron L. Friedberg)도 유사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국익 및 정치적·이념적 차이를 근거로 “중국은 급속히 부상하는 강대국으로서 자국의 영향력을 제고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우위(preponderance)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한다.<sup>11)</sup> 보다 공식적인 입장은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중국군사력 평가서에 나타나 있다. 동 보고서는 2011년 1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시 “미국은 국제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강하고, 번영되고, 성공적인 중국을 환영한다”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은

9) 키신저, p. 521.

10) 강대국 정치의 역사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다룬 미어샤이머 교수의 연구는 많이 있으나 국내에서 발표한 John J. Mearsheimer, "The Rise of China and the Fate of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Question: Balancing Theory and Practice" host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Shilla Hotel, Seoul, October 7, 2011 및 "Taiwan in the Shadow of a Rising China," a speech text delivered to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aipei, Taiwan, the ROC, 2013년 12월 7일 참조.

11) Aaron L. Friedberg,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1). 인용은 p. 98. 이 연구에 대한 비평가 미·중경쟁의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로는 Martin Jacques, "The Case for Countering China's Rise," *New York Times Book Review*, September 23, 2011 참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증가하는 이익의 자신감 있는 표출과 이에 대한 반대 그리고 지역국가와 강대국의 상쇄(countervailing) 반응을 회피하려는 욕구 간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sup>12)</sup>

상기한 저자의 대부분은 중국이 부상하는 강대국이라는 하나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 하에서 지역안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을 제외하면) 현상유지국(status-quo power)이라는 점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언하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안보에 ‘만족’(satisfied)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성향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이다. 중국의 지도부는 21세기 전반 20년(즉, 2000~2020년)을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重要戰略幾週期)”로 보고 소위 “소강(小康)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상하더라도 현상유지국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이는 위에서 논의한 ‘의도와 능력’에 대한 논쟁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중국이 자신의 의도에 관계없이 현상타파국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논의의 초점은 의도가 아닌 중국의 능력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맞춰져야 한다.

중국의 ‘반접근 전략·능력’은 좋은 예이다. 동 개념의 원명은 ‘반접근/영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이하 ‘반접근’)인데,<sup>13)</sup> 이는 대만해협 유사사태에 대한 중국군의 대비에서 유래하였고, 위기 발생 시 미 해공군의 작전 지역·영역에의 진입을 ‘억지, 지연 그리고 가능하면 패퇴’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산이 운용되어야 하는 데 기본적으로 잠수함 전력, 4세대 전투기, 각종 미사일(공대지, 함대함, 대함탄도미사일[ASBM]),<sup>14)</sup> 그리고 다양한 연안방어체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2)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pp. 1, 55.

13) 동 개념은 2001년도 『4개년 국방검토서』(QDR)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0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01) 참조. 동 개념에 대한 권위있는 분석은 Michael McDevitt, "The PLA Navy's Anti-Access Role in a Taiwan Contingency," paper delivered to the NDU symposium on the PLA Navy" www.ndu.edu/inss 및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 (ONI),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A Modern Nav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 ONI, August 2009) 참조.

14) 동 미사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Andrew S. Erickson and David D. Yang, "Using the Land to Control the Sea? Chinese Analysts Consider the Antiship Ballistic Missile" and

동 전략은 외국군이 단독 혹은 타국군과 연합하여 작전 지역·영역 내 혹은 주변에서 작전하는 능력을 희석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로 ‘반접근’(anti-access)은 미국측이 만든 개념으로서 중국군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sup>15)</sup> ‘반접근’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積極防禦’ 혹은 ‘戰略防禦’인데, 중국의 권위있는 국방전략서인 『戰略學』(2001년)은 “적극방어의 본질은 공세[적] 방어이다. 비록 전략방어는 전체적으로 방어적이고 형식상으로 피동적이거나, 이는 순전히 방어적 작전이 아니며, 적의 공격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sup>16)</sup> ‘戰略防禦’ 전략의 작전차원은 ‘戰略機動’인데 그 주요 요소는 “주도권(主動權)을 잡고”(掌握主動), “신속히 행동하고”(行動迅速), “원활히 기동하고”(機動靈活), “협조를 강화하고”(加強協調), “공개와 은폐를 결합하고”(公開與隱蔽結合), “선점과 기동을 결합하고”(預置和機動結合), “전략기동과 작전을 결합하는 것”(戰略機動與作戰結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7)</sup> 특히, 동 전략서는 다층적인 ‘반접근’ 능력 제고를 통한 ‘적극적 근해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격 목표 및 범위에 대해 “작전지역에 있어...[아국의 국경과 근해·근안으로부터] 가능한 한 먼 지역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며, 적의 작전기지 심지어는 적의 전쟁 원천지(戰爭策源地)를 대상으로 적의 전쟁체계의 생산력 일체를 적극적으로 타격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sup>18)</sup>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군 현대화의 주요 추이와 향후 획득 전망 외에도 중국의 대외 위협인식, 군사전략, 국방예산,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 방위산업, 인사 및 당-군관계, 그리고 교육·훈련·연습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표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중국군은 1985년 시작된 전면적인 군현대화 계획

Eric Hagt and Matthew Durnin, "China's Anti-Ship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nd Missing Link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Autumn 2009), 각각 pp. 53-86 및 87-117 참조.

15) 대만과 중화권에서는 ‘반접근’(anti-access)을 일반적으로 ‘反介入’이라고 해석하며, ‘영역거부’(area denial)는 ‘區域阻止’, ‘區域阻遏’, ‘領域遏制’ 등 다양하게 표현한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광의의 개념이고 후자는 ‘지역’뿐만 아니라 영역, 구역, 비행장, 항만, 시설 등을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역거부’로 번역하였고, 통칭해서 ‘반접근’을 사용한다.

16) 軍事科學院戰略研究部, 『戰略學』(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1), p. 325. 이 책의 영문본은 Peng Guangqian and Yao Youzhi,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이다.

17) 상기한 7가지 원칙 및 주요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계서, pp. 336-39 참조.

18) 상계서, pp. 490-91.

의 추진으로 인해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우선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말까지 약 15년간 현대화 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인력, 조직, 장비,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군사기술의 낙후성, 병력규모의 비대, 장비의 양적 팽창 및 구형화·노후화, 첨단장비의 부족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동 기간 중 장비현대화의 중점은 핵무기, 미사일, 주요 수상함, 첨단 전투기 등과 같은 선별적인 주요 무기체계로서, 특히 걸프전 이후 정보자산, 디지털화, 정밀유도 기술과 같은 미래전 능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특정 무기체계 및 기술의 발전이 전체 군전력의 향상으로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국 첨단무기 및 기술의 도입은 단기적 소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서, 중국의 당·군 지도부는 외국무기체계의 직수입을 최소화하고, 첨단기술의 도입을 최대화하여 국내 방산기술력의 제고를 통한 군 현대화 및 미래전 대비를 추진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중국군이 1999년-2000년을 기점으로 과거 15년과는 다른 군현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2000년대 전반 이후 중국은 1) 다양한 신형무기체계 생산 및 배치, 2) 외국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확대, 3) 신속대응능력 제고, 4) 정보전(‘信息戰’)/전자전 능력 배가, 5) 통합군수지원(ILS)능력 구축, 6) 대군구간 합동(‘聯合’)훈련 및 연습 강화, 그리고 7) 각종 미사일 체계 생산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sup>19)</sup>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군종별 중점 계획 및 무기 개량사업의 경우 개념, 운용 및 훈련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동작전능력, 군구간 협조능력뿐만 아니라, 기동 및 신속대응능력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러시아를 비롯한 군사선진국의 기술지원은 중국의 특정 기술·능력 획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를 전력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재정적·관료적·정치적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0)</sup> 특히, 중국의 정보화, 체계통합, C4I 능력제고는 현재까지 군 최고지도부의 간헐적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으나, 중국의 17차

19) 2000년 이후 중국군의 전력발전 추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자의 졸고, “중국의 ‘군사적 부상’: 2000년 이후 전력증강 추이 및 지역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73호(2006년 가을), pp. 163-203 참조.

20)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의 ‘정보혁명’ 능력 비교에 대해서는 Jeremy R. Azrael and D. J. Peterson, "Russia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 *RAND Issue Paper* (2002) 참조.

당대회(2007년 10월 개최) 이후 전문군사교육(PME)을 받은 군 지도부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전’ 및 ‘군사분야혁명’(RMA)에 대한 관심은 과거 지도부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보다 분명한 점은 중국군은 현재의 전구급(theater-level) 전력을 향후 전역급(campaign-level) 전력으로 ‘전환’(transformation)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역급 전투능력은 중장기적, 즉 2020년 이후에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sup>21)</sup>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군현대화 형태(pattern)는 2000년 이후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이는 장기적이고 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해 ‘반접근’ 전략은 전장(戰場; 즉, 주변유사)과 가상의 적(즉, 미국 및 동맹국)이 보다 분명한 전투력 운용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동 전략은 동아시아 유사 발생 시 미 해공군의 접근을 저지하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러시아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의 획득은 중국군의 새로운 ‘자체 개발·생산’ 무기체계 및 전력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출처일 뿐만 아니라 ‘반접근’ 능력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중국의 러시아 무기체계 및 기술 도입은 공군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현대전에서의 공군력의 중요성에 비해 첨단 전투기의 국내 생산 수준이 낮고, 또한 공군력 배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한 조치이다. 공군력의 경우 4세대 수호이(Sukhoi) 계열 전투기, 일류신(Ilyushin) 수송기와 공중 급유기 그리고 ‘자체 생산’한 J-11A/B 전투기, KJ-2000 조기 경보기, Y-20 수송기는 대표적인 예이다. 해군력의 경우도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킬로(Kilo)급 잠수함 12척을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이유를 고려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중국 해군은 소브레멘니(Soveremenny) 급 구축함 4척을 러시아로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sup>22)</sup>

21) 2016년 경 중국 해군의 전투서열에 대한 분석은 Bernard D. Cole, "Rightsizi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How Much Naval Force Will Beijing Deploy by 2016?" *Asia Policy*, No. 4 (July 2007), pp. 84-88 참조.

22) 중국은 위스키, 로미오, 골프, 밍(明), 쑹(宋), 위안(元)급 잠수함과 킬로급 잠수함 그리고 뤼다(旅大), 뤼후(旅滬, 052형; 함번 112, 113), 뤼하이(旅海, 051B형; 함번 167), 뤼양I/II(旅洋, 052B/C형; 함번 168-171), 뤼저우(旅洲, 051C형; 함번 115, 116)급 구축함과 소브레멘니급 구축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중국이 ‘반접근/영역거부 전략’을 통해 대만해협을 포함한 역내 유사 발생 가능지역에서 미 해공군의 진입을 억지 혹은 지연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 미국은 역내 전진기지의 유지·운용 및 자유로운 항해권 확보를 통해 역내 안정 및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미국이 ‘공해전투개념’(ASBC: AirSea Battle Concept)을 개발하게 된 원인 중 하나이며, 이외의 주요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23)</sup>

냉전기 미국은 소련에 대한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공지전(Air-Land Battle)에 기반을 둔 나토(NATO)군을 유지하였는데, 탈냉전기 세계적 힘의 이동(power shift)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었고, ‘대양국가’(inter-oceanic power)인 미국은 태평양 연안에 대한 접근(access)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2001년 9.11 사태 이후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대테러전이 종결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미국의 방어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재정 및 교역적자로 인해 국내 자원제약의 압력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국방예산 및 신형 무기획득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및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상황 변화는 미국의 국가정체성(예, ‘태평양 국가’)의 재표명, 국가전략 및 국방전략의 조정 그리고 아·태지역 내 미군의 운용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한 순차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현실과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력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하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미국의 국가전략상 그리고 경제·외교·군사적 차원에서 중점적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략·작전이 해공군 합동 ‘공해전투개념’이며, 최근 개발하기 시작한 ‘합동작전접근개념’(JOAC: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도 유사한 개념이다.<sup>24)</sup>

사실, 이 양대 개념은 특징상 큰 차이가 없으며 일부 국가의 ‘반접근’ 능

23) ‘공해전투개념’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정호섭, “반(反)접근·지역거부 대 공·해 전투 개념: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 『STRATEGY 21』, Vol. 14, No. 2 (Winter 2011), pp. 5-32;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9권 제1호(2012년 3월), pp. 187-216 참조.

24)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및 U.S. Department of Defen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참조.

력 제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 공중, 지상, 우주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합동전/통합전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매우 조직적이고 일체화된 군사력 운용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정호섭은 ‘공해전투개념’의 핵심 요소를 다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해공군 전력의 통합 운용 및 협조관계의 제도화; 둘째, 역내 미국의 전진기지 생존성 강화; 셋째, 아·태지역 내 미군의 전력태세 강화; 그리고 넷째, 역내 안보 동반자관계 혹은 동맹국 지원(allied support) 강화이다.<sup>25)</sup>

상기한 미국의 양대 전략·작전개념은 현재 개발 초기단계로서 실제 훈련 및 작전 적용에는 수 년이 소요될 것이다.<sup>26)</sup> 필자가 판단하기에 미국과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쟁적 상호의존’(competitive interdependence)관계를 갖고 있고, 양국의 최고지도부가 타방을 경쟁국 혹은 잠재적 도전세력으로 인식하는 한 양국간의 군사적 경쟁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직접적인 문제는 역내 다수 국가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최대 안보보장국인 미국과의 경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의 중국 이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는 중국군 첨단 전력의 주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반접근 능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상기한 소브레멘니급 구축함, 킬로급 잠수함 및 Su-30MK2/Su-30MKK 전투기는 중국의 최첨단 전력으로서, 고난도의 핵심 ‘반접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13년 내내 도입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 Su-35 전투기 1개 대대(24대)와 아무르(Amur)/라다(Lada)급 잠수함 4척도 지난 20여년 간 양국의 무기 및 군사기술 거래 추이 그리고 반접근 전략 차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sup>27)</sup> 참고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기 및 군사기술 이전은 2006년 말 이후 3년 이상 공백기를 거친 후, 2010년 10월 이후 재개되고 있고, 천빙더(陳炳

25) 정호섭, “반(反)접근·지역거부 대 공·해 전투 개념,” pp. 22-28.

26) 상기 개념의 작전상 불확실성, RMA와의 비차별성, 동맹국 역할의 모호성 등에 대한 간결한 비판은 Sam Bateman, “US AirSea Battle: Countering China’s Anti-access Strategies,” *RSIS Commentaries*, No. 82/2011 (May 19, 2011); Michael Raska, “Decoding the Air-Sea Battle Concept: Operational Consequences and Allied Concerns,” *RSIS Commentaries*, No. 158/2012 (August 23, 2012); Richard A. Bitzinger, “AirSea Battle: Old Wine in New Bottles?” *RSIS Commentaries*, No. 159/2012 (August 23, 2012) 참조.

27) 이에 대한 보도로는 “中國從俄羅斯購入24架蘇-35和4艘潛艇,” 『多維新聞』 (<http://military.dwnews.com>), 2013년 3월 24일; David M. Herszenhorn, “China’s New Leader, Visiting Russia, Promotes Nations’ Economic and Military Ties,” *New York Times*, March 22, 2013; “중·러 전투기·잠수함으로 해·공군력 강화,” 연합뉴스, 2013년 3월 26일 참조.

德) 중국군 총참모장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위’) 위원(2011년 8월), 귀보송(郭伯雄) 중앙군위 부주석(2011년 9월)과 같은 군고위급 인사 외에도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중앙군위 주석(2011년 6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부총리(2012년 4월), 그리고 시진핑(習近平) 신임 국가주석 및 중앙군위 주석(2013년 3월) 등의 러시아 방문 및 양국간 군관련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sup>28)</sup>

### Ⅲ. 역내 하부지역과 유사에 대한 함의

이 주제에 대해 분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동아시아의 정치적·지리적 다양성이다. 예를 들어, 쌍방간의 지상전을 위주로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와는 달리 남중국해의 분쟁은 다자적일뿐만 아니라 해상 분쟁 위주이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북아시아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갈등 및 군사화 수준이 높고, 쌍무 성격의 분쟁지역이며, 동맹 및 군사협력도 쌍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에는 6자회담, 동북아 정상회담(NEA SM),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협력기구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군사력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 잡을 것이냐는 질문은 별 의미가 없다. 같은 논리로서 일 국의 전투서열이나 전력의 1대1 비교와 같은 ‘숫자 세기’(bean counting)도 큰 의미가 없다. 보다 현실적으로 중국 해군은 대공 방어, 해상 공군력 그리고 대함 작전 능력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나 중국 주변국의 해군은 더 많은 약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인한 함의에 대해 전략적·군사적 평가·대비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중국 해군은 현재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대만해협 유사에 대한 대비와 진정한 지역 해군 건설이라는 양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

28) 2010년대 후반기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및 무기·기술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Stephen Blank, *Shrinking Ground: Russia's Decline in Global Arms Sales* (Washington, DC: The James Foundation, 2010) 참조.

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29)</sup> 중국의 국가이익 확대와 이에 따른 해양 이슈 및 해군 역할의 증가를 감안할 때, 이는 상식에 속한다. 이와 같은 추이는 아덴만과 같은 역외에서의 대해적 작전, 국제적 재난 시 인도적 지원 및 구난 활동(HA/DR), 해상 교통로(SLOC) 보호, 해상 교역 및 에너지 수송, UN 평화유지군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sup>30)</sup> 사실상 양대 목표 간에는 중복되는 역할과 임무가 있으나 이는 전체적 목표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현명하다.

## 1. 동남아시아/남중국해: 지리적 제약과 투사능력의 한계

중국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경제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된 대외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도 대화와 외교적 협상을 오랫동안 주창해 왔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과의 쌍무 협의, 『남사군도 유관국 행동에 관한 선언』 서명(2002년), 그리고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세안+1, 아세안+3와 같은 다양한 아세안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前) 중국 해군 소장인 왕이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힘이 상당히 확대된 결과,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두려움과 의심이 제고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까지 호언하였다.<sup>31)</sup>

이와 같은 중국측의 공식 수사를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중국은 원거리 투사능력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군 전력만 보더라도 Su-30MK2(Su-30의 해상형) 대대, 전폭기(JH-7/FB-7) 대대, 해군 육전대 2개 여단, 차세대 공격용(093형) 및 전략미사일(094형)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해남도 내 공군 및 해군 기지 건설 및 증축, 동·남

29) 대만해협 유사는 중국의 근현대화의 추동 요인(driver)이나 중국 해군 현대화의 범위 및 성격을 볼 때, 대만해협 유사 이상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Roy Kamphausen, David Lai, and Andrew Scobell, eds., *Beyond the Strait: PLA Missions Other than Taiwa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April 2009); Michael A. Glosny, "Getting Beyond Taiwan? Chinese Foreign Policy and PLA Modernization," *Strategic Forum*, SF No. 261 (January 2011), www.ndu.edu/inss 참조.

30) 2009-10년 활동에 대해서는 『中國的國防 2010』 참조.

31) 왕이 소장은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Wang Yi, "Navigating Stormy Waters: The Sino-American Security Dilemma at Sea," *China Security*, Vol. 6, No. 3 (2010), p. 3-11, esp. p. 5 참조.

중국해에 대한 해상순찰 활동 강화, 그리고 동해·남해합대에 2척의 공격용 핵잠수함 배치 등을 통해 원거리 투사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2009-2012년 기간 중 보다 ‘공세적인’(assertive)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실상 중국은 자국이 정의하는 ‘주권과 영토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는 최근 ‘핵심 이익’(core interests)으로 표현되고 있다.<sup>32)</sup>

중국과 아세안국가 간의 군사력 격차를 감안할 때, 남사군도 분쟁 당사국이 자국 혹은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 중국의 공세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33)</sup> 최근 아세안 국가중에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자국 근현대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베트남은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636형) 6척의 도입을 결정하였고, Su-30 전투기 12대를 획득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FA-50 경공격기 12대,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척의 209/1400형의 획득을 결정하였다.<sup>34)</sup>

32) 단, 중국은 1960년대 초 상대국이 ‘불평등 조약’의 불인정과 현상 유지라는 두 가지 원칙을 수용할 경우 외교적 교섭을 통해 영토분쟁을 해결하였다. 이에 네팔(1961년), 북한(1962년), 몽골(1962년), 파키스탄(1963년), 아프가니스탄(1963년)이 포함된다. 또한, 1990년대에도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외부환경의 조성을 위해 비군사적 방법으로 영토분쟁을 해결하였다. 라오스(1991년), 러시아 서부국경(1994년), 카자흐스탄(1994년), 키르기스스탄(1996년), 타지키스탄(1999년), 베트남(1999년) 그리고 러시아 동부국경(2004년)이 이에 속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Taeho Kim, "China's Territorial Ambitions? Enduring Patterns and New Developments," in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ed., *PLA Naval Build-up and ROK Navy-US Navy Cooperation* (Seoul: KIMS, 2009), pp. 97-113 and 339-57. (in Korean and English) 또한 스웨인(Michael D. Swaine)은 ‘중국의 공세적 태도’ 및 ‘핵심이익’에 대해 수년간 자세하고도 예지력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Michael D. Swaine, "Part Four: The Role of Military in Foreign Crises," *China Leadership Monitor* (이후 CLM으로 약칭함), No. 37 (April 30, 2012). Available at [www.hoover.org/publications/china-leadership-monitor](http://www.hoover.org/publications/china-leadership-monitor); "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LM*, No. 36 (January 6, 2012); "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with M. Taylor Fravel), *CLM*, No. 35 (September 21, 2011); "Part One: On 'Core Interests'," *CLM*, No. 34 (February, 22, 2011) and "Perceptions of an Assertive China," *CLM*, No. 32 (May 11, 2010) 참조.

33) 남사군도를 둘러싼 무력분쟁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Evan S. Medeiros, "The New Security Drama in East Asia: The Responses of U.S.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to China's Ris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2009), pp. 37-52; 남중국해에 위치한 동사·중사·서사·남사군도에 대한 분쟁사와 입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는 沈克勤, 『南海諸島主權爭議述評』(臺北: 臺灣學生書局, 2009) 참조. 남사군도에 대한 최근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Darshana M. Baruah, "South China Sea: Beijing's 'Salami Slicing' Strategy," *RSIS Commentaries*, No. 054/2014 (March 21, 2014) 참조.

34) 이에 대한 일부 기사로는 『동아일보』, 2014년 3월 28일 및 Koh Swee Lean Collins, "Vietnam's New Kilo-class Submarines: Game-changer in Regional Naval Balance?" *RSIS Commentaries*, No. 162/2012 (August 2012) 참조.

다만,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10개의 아세안 회원국은 남사군도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데,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구 버마)는 중국에 동조적인 입장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 분쟁에 대한 미국의 연루를 경계하고 있고, 태국과 싱가포르는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sup>35)</sup> 이와 같은 아세안의 내부 분열은 해상지역인 동남아에서의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요약하면, 역내 안정 및 ‘책임있는 대국’(負責任的大國)이라는 중국의 공식 입장과 국가이익에 기반한 현실주의적 행동(realpolitik) 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간헐적이나 지속되고 있는 남사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및 외교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즉, 1988년 이후) 주요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안정자 역할(특히, 해외 기지와 항해의 자유)과 중국의 제한적 원거리 투사능력이라고 판단된다. 지리적 요인만 보더라도 중국으로서는 장거리 해·공군 자산이 필요한데, 이는 Su-30MK2의 재급유 능력, 소브레멘니(Sovremenny) 구축함, 킬로(Kilo)급 잠수함외에도 해상보급능력(RAS), 해양감시위성체계 및 항모발진 공군력이 요구된다. 중국군은 분명히 원거리 해상작전능력의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작전능력이 충분히 운용될 때까지 남사군도나 미군에 대한 중국의 ‘반접근’ 작전은 지상에 기초한 자산(예, 지상 발진 항공기 및 연안의 대함 미사일)의 보호 범위 내로 국한될 것이다.<sup>36)</sup>

35) 예를 들어 Trefor Moss, "Regional Matters: Regional Overview--Southeast Asia," *Jane's Defence Weekly*, May 6, 2011; International Crisis Group,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 Asia Report No. 223 (April 23, 2012); International Crisis Group,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I): Regional Responses*, Asia Report No. 229 (July 24, 2012); Christopher Freise, "By Invitation, Mostly: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US Security Presence,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RSIS Working Paper*, No. 247 (August 28, 2012) 참조. 특히, 2014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이 남사군도의 몇 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선포함으로써 남사군도 분쟁 당사국이 되었고, 같은 달 필리핀 정부는 44년간 지속되어 온 내전의 주동 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Ann Marie Murphy, "The End of Strategic Ambiguity: Indonesia Formally Announces Its Dispute with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PacNet* #26 (April 1, 2014) 참조.

36)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작전능력 제한에 대한 간결한 분석은 Bernard F. W. Loo, "Chinese Military Power: Much Less than Meets the Eye," *RSIS Commentaries*, Number 111 (September 9, 2010), pp. 1-2 참조.

## 2. 대만해협/대만: ‘반접근’ 전략의 핵심 난제

대만은 중국의 정치, 외교 및 군사의 관건적 이슈이다. ‘反접근’ 전략의 주 대상 지역인 대만해협에 대한 작전은 육·해·공군(예, 공중 우위, 해상 통제 및 상륙 능력) 및 전략미사일군(‘第二砲兵’)의 입체작전능력 뿐만 아니라 전쟁 동원 및 지속능력, 심리전, 방어능력 등 ‘전면전’(※ 중국의 입장에서 는 ‘제한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군은 오랜 기간 상기한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대만의 대공 방어 능력의 감소를 감안할 때 중국 공군 및 해군 항공병의 첨단 전투기 획득은 매우 인상적이다.<sup>37)</sup> 해상 통제 능력 또한 다양한 형(type)/급(class)의 구축함과 프리깃함의 획득, 그리고 특히 1994-2007년 기간 중 38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통해 제고되고 있다.<sup>38)</sup> 중국군의 상륙전 능력은 대체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나 수량 및 적화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sup>39)</sup> 특히, 중국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은 상당한 위협 수단인데 지대지 미사일(SSM),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LACM), 대함 순항 미사일(ASCM)은 단독 사용 혹은 다른 자산과 혼용 사용 시 큰 도전이 될 수 있다.<sup>40)</sup>

대만해협 유사 시 중국군이 운용할 수 있는 작전상·전술상 수단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다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즉, 가장 효과적인-일부 방안은 식별이 가능하다. 우선, 공중 우위는 해상 및 상륙 작전 뿐만 아니라 대만의 방어를 약화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제3국의 개입 발생 이전 전투를 종료하는 시나리오에서 공군력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중국이 보유하고 있

37) 대만이 F-16C/D Block 50/52 획득을 통해 대공 방어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otta Danielsson-Murphy, ed., *The Balance of Air Power in the Taiwan Strait* (Arlington, VA: US-Taiwan Business Council, May 2010) 참조.

38) 중국 해군의 역사, 임무 및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Bernard D. Cole,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2nd ed.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0) 참조.

39) James C. Bussert and Bruce A. Ellem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Combat Systems Technology, 1949-2010*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1), p. 98, Table 24; Richard D. Fisher, Jr.,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Building for Regional and Global Reac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 154, Table 6.8 참조.

40)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Eric C. Anderson and Jeffrey G. Engstrom, *Capabilitie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o Carry Out Military Action in the Event of a Regional Military Conflict* (McLean, VA: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March 2009), pp. 48-49, 52 참조.

는 다양한 종류의 탄도 미사일은 지휘·통제센터, 비행장, 항구, 군사시설 등 대만 내 주요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군력 사용과 동시에 혹은 사전에 운용될 수 있다. 다만, 미사일 전력만으로 대만의 반격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또한 대만인의 전쟁 수행의지를 좌절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외에도 정·군 지도부의 능력, C4ISR 체계,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 군(軍) 간 협력 등 ‘비장비’(non-equipment) 측면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즉, 전역급 전쟁) 성공의 필수적인 요인이다.

물론 중국군은 대만군에 비해 명백한 양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양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더라도, 만일 중국이 무조건적인 대만 공격을 실시하고 제3국의 대만지원이 없는 경우 중국군은 대만군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초토화시키면서 까지 대만을 점령해야 할 이유와 필요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정면공격이 아닌 우회전술로서 대만과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군사력은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 침공 시 중국 해군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는 미 해군의 개입이다. 이에선 매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되는 데, 예를 들어 중국 해군은 대만해협에 진입하는 미 함모전단(※ 최소 4개 전단)을 가능한 한 지연시킴으로서, 중국 공군, 전략미사일군, 그리고 지상군의 합동작전(聯合作戰)을 용이하게 할 임무가 있다.<sup>41)</sup> 대만 침공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만해협에서의 제해권 외에도 제공권과 상륙전 능력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반접근’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해양 정찰·감시체계가 필요한데, 지구의 굴곡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성에 의한 감시이다.

또한, ‘반접근’ 전략 추진 및 제해권 확보를 위해서는 공군력이 필수적인데, 중국 공군의 경우 殲轟-7(JF-7/FB-7) 1개 대대(20-22대), Su-30MKK 2개 대대가 對함(anti-ship)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군 ‘항공병’은 1개 전폭기 대대 및 1개 Su-30MK2 대대가 대함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sup>42)</sup> 특히, 상기한 지상발진 전투기와 전폭기가 장착하고 있는 대함 순항 미사일의 거리는 함모전단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미사일보다는 플랫폼인 전투기의

41) 대만유사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연구로는 David A. Shlapak, David T. Orletsky, and Barry A. Wilson, *Dire Strait? Military Aspects of the China-Taiwan Confrontation and Options for U.S. Policy*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2000) 참조.

42) 중국 공군 연구의 대표적인 전문가인 앨런(Kenneth Allen) 연구원과의 토론 내용, 미 워싱턴시, 2006년 10월 및 저자의 추정.

요격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며, 중국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 개발 노력은 이와 같은 작전상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이외에도 중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반접근’ 다층 방어에의 주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은밀성과 중국 잠수함의 수량적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데,<sup>43)</sup> 만일 중국이 해상거부 해역의 경계선에 잠수함을 배치할 경우, 항모전단 당 최소 6척의 잠수함이 소요되고 단순계산으로 3-4개 항모전단에 필요한 잠수함 전력 수는 18척-24척이나, 작전에 투입된 잠수함, 모함으로 귀환하는 잠수함, 그리고 보수·보급 후 작전에 참여할 잠수함을 계산할 경우 총 54척에서 72척의 잠수함 전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중국은 상기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전 경험 부족 외에도 상당히 많은 보급 및 작전상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44)</sup>

상기한 구체적인 군사적·작전상 측면 외에 보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안 간 화해 무드의 향후 전개 전망이다. 최근 서터(Robert Sutter)가 주장하듯이, “부상하는 중국, 약화된 대만, 그리고 감소하는 미국의 지원”은 궁극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궤도(orbit) 내로 밀어 넣을 것인가?<sup>45)</sup> 아니면 이와는 대비되는 시각으로서, 대만 정치의 거대 담론이 국가 정체성에서 경제·복지로 전이되었기 때문에 양안 간 데탕트가 향후 지속될

43)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가와 ‘반접근’ 전략에서 잠수함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MIT에서 발간되는 권위있는 국제안보 학술지인 *International Security*의 경우, 다음과 같은 2개의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Michael A. Glosny, *Strangulation from the Sea? A PRC Submarine Blockade of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4 (Spring 2004), pp. 125-60; Lyle Goldstein and William Murray, *Undersea Dragons: China's Maturing Submarine For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8, No. 4 (Spring 2004), pp. 161-96 참조. 중국의 잠수함 및 역내 잠수함 전력 발전 추이는 정의승, 『한반도 미래방위의 지렛대: 한국형 잠수함 KSS』(서울: 고려원북스, 2005) 및 허성필, “주변강대국 잠수함 전력 건설 동향과 발전 추세에 따른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069호, 2005년 8월 8일 참조. 최근 추이 및 잠수함 운용에 대한 분석은 한중환, “중국해군의 잠수함 현대화에 관한 연구,” 『STRATEGY 21』, 통권 제24호(2009년 가을), pp. 55-89 참조.

44) 보다 효과적인 ‘반접근’ 무기체계는 고품을 장착한 기동 가능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일종의 “순항/탄도 미사일 혼합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양 감시 체계, 미사일 가이드스(guidance) 및 표적 식별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이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체계이나, 중국 미사일군이 이와 같은 능력을 추진하고 있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45) Robert Sutter, *Taiwan's Future: Narrowing Straits*, NBR Analysis, May 2011. 대만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통합’ 시도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Parris H. Chang, “Beijing Copes with a Weakened Ma Administration: Increased Demands, and a Search for Alternatives,” *China Brief*, Vol. 14, Issue 2 (January 17, 2014) 참조.

것인가?<sup>46)</sup> 상기한 두 가지 견해는 양안관계의 다른 미래를 상정하고 있으며 전자는 현재의 현상유지가 궁극적으로 변화한다는 시각이고 후자는 현상유지만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견해이다. 특히, 향후 전자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이는 대만과 역내 이슈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역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동북아시아(동중국해/한반도): 지정학적·역사적 고려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보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안보관계 그리고 미국과 양국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일 안보동맹의 지속은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동 지역의 안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당분간 미국은 역사 및 영토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키면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지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특히, 역사문제에 대한 최근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과 행동은 미국의 아·태전략 및 동맹관리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세계 2, 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동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비록 양국은 성격과 규모가 매우 다른 군사력을 갖고 있으나 양국의 군사력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현재 중·일 양국간의 ‘적대적’ 관계와 한·일간의 갈등은 분명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가 아니라 안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일 양국관계는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경제·안보 질서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나 양국 간의 전통적인 경쟁관계 및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잠재력은 우려할만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특히, 양국 정부가 국내외 도전을 맞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양국관계가 돈독하고 협력적이기 보다는 취약하고 대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46) 이는 디트머(Lowell Dittmer)의 견해로서 2011년 7월 15일 동아시아연구원(EAI) Smart Talk Seminar에서 발표한 “Taiwan’s Security in an Era of Cross-Strait Detente” 참조.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해양 이익과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추이를 감안할 때, 중국 해군의 임무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중국의 해군 현대화는 역내 국가들의 불안을 조성하게 되고 해양에서의 작용-반작용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과 미국 간의 세력 전이와는 별도로 역내 중국과 일본 간의 세력 전이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통적인 지역 강국인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특히 일본의 경우 ‘대항적 민족주의’, 경제·사회적 위기 의식, 정치적 ‘우경화’와 전후 지도자 세대의 등장은 우려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sup>47)</sup>

특히, 2012년 여름 이후 센카쿠/다오위다오/다오위타이(尖閣列島/釣魚島/釣魚臺)에 대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논쟁에서 나타나듯이, 어느 한 쪽도 해양 영토분쟁과 같이 민감하고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사안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 어렵고, 적어도 그 이면에는 국내정치적 고려가 자리잡고 있다.<sup>48)</sup>

결론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고 갈등이 첨철된 관계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공히 경제적 협력 혹은 지역 안정과 같은 상호 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경쟁관계 및 역사적인 불신이 ‘구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인식적 요인이 내재(內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에 등장한 새로운 지도부는 아래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다양한 도전을 맞고 있는데, 양국 지도부가 이 같은 도전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관리·해결하는가는 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양국간 상호의존과 경쟁

47) ‘대항적 민족주의’는 와세다 대학 이종원 교수의 표현으로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statism)에 대한 일본인의 성향을 지칭한다. 이종원 교수와의 인터뷰는 『동아일보』, 2012년 9월 24일 참조.

48) 동 해상분쟁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자료가 있으나 해당국의 입장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으로는 Michael D. Swaine, "Chinese Views Regarding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41 (June 6, 2013); Paul J. Smith, "The Senkaku/Diaoyu Island Controversy: A Crisis Postponed,"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6, No. 2 (Spring 2013), pp. 27-44; Noboru Yamaguchi, "A Japanese Perspective on the Senkaku/Diaoyu Islands Crisis," in The East Asia Program, ed., *Tensions in the East China Sea* (Sydney: The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December 2013); and Barthelemy Courmont, "Territorial Disputes and Taiwan's Regional Diplomacy: The Case of the Senkaku/Diaoyu/Diaoyutai Island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Seoul), Vol. 1, No. 1 (Winter/Spring 2014), pp. 113-34 참조.

간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안보는 지속적으로 불안정  
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한 이후 지난 21년 간 모든 주요 이슈·영역  
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sup>49)</sup> 다만, 양국관계의 중점은 경제 및 사회·문  
화 영역이었고, 정치·외교 및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sup>50)</sup> 특히, 천안함 폭침(2010년 3월)과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의 주요 안보 위기 시  
자국의 원칙과 국익을 고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 유사, 고구려사,  
사, 재중 탈북자 등 많은 이슈에 있어 한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는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특히 지정학적 요인 및 역사적 고려가 강조되고 있  
다.<sup>51)</sup> 첫째,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가장 근접하게 위  
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3성(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  
이룽장[黑龍江]성) 중 랴오닝성과 지린성과 약 1,4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  
다. 또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지정학적으  
로 소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 혹은 ‘통로’(通  
路)이다. 한반도와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서해/황해가 보하이(渤海)만과 연결  
되어 있다는 사실도 한반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 현재적으로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  
에도 지정학적인 고려가 내재되어 있다.

둘째, 상기한 중국과 한반도 간의 지리적·지정학적 요인은 역사적으로  
양측간의 수많은 조우를 낳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중국의 군사 개입 그리고 일본의 만주지역 및 중국침략을 위한  
한반도 선점을 들 수 있다. 구한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각축과

49) 최근 한·중관계에 대한 개관은 저자의 줄고, 김태호, “Sino-ROK Relations at a Crossroads:  
From *Qitong cunyi* (求同存異) to *Yizhong qitong* (異中求同),” *New Asia*, Vol. 19, No. 2  
(Summer 2012), pp. 34-44 참조.

50) 양국은 지난 21년 간 관계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는  
1) 이슈·영역별 불균형 발전, 2) 양국 관계의 행위자와 범위의 급속한 확대, 3) ‘중국의 부상’과  
동 현상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4) 양국 간 국력 및 인식의 차이 확대가 포함된다.

51)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역사적 관점은 저자의 줄고 Taeho Kim, “China’s Growing  
Military Strength and the ROK-U.S. Alliance,” paper presented at The ROK-U.S. Allia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 New Security Order in East Asia and the ROK-U.S.  
Alliance” hosted by the East Asia Institute (EAI), and held at Westin Chosun, Seoul,  
Korea, October 20-21, 2011 참조.

1894년 청·일전쟁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간의 침략사는 한반도 혹은 서해 상의 제패가 관건이었다. 21세기에도 한반도와 서해는 미국의 ‘해양패권’과 중국의 국익이 상충되는 아시아의 주요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다.<sup>52)</sup>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은 중국의 전략가들로 하여금 한반도는 중국의 안보에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켰고,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일종의 프리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한반도와의 ‘선린관계’는 중국의 국가목표인 경제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의 급속한 경제관계 발전은 명목상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냉전적 사고’의 불합리성을 대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타당성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중간의 경제교류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북한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의 발전과 국경안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최근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대북 투자, 재중 탈북자(※중국정부 표현으로 ‘불법 월경자’) 문제, 그리고 북한체제의 유지·지원은 중국의 경제·안보 이익과 연계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가치’는 명백하다.

넷째,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중화세계’의 일부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자신의 세력권내에 속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인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최소한 한반도에 대한 다른 강대국의 독점적 지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중국의 강대국화 및 ‘부국강병’(富國強兵)의 실현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안보사안이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지정학적·역사적 고려로 인해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한반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북한 유사사태의 발생은 양국 간 대결적 상황을 조성할 수도

52) 이삼성 교수는 동아시아 내 미국의 해양패권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갈등 가능 지역으로 1) 대만해협, 2) 남중국해, 3) 오키나와, 그리고 4) 한반도 서해상을 지목하고 있다. 이삼성, “21세기 동아시아의 지정학: 미국의 동아태지역 해양패권과 중미관계,” 『국가전략』, 제13권 1호(2007년 봄), pp. 5-32 참조.

있다. 더욱이, 한반도 유사는 대만해협이나 남사군도의 경우와는 달리 초기에 지상군이 투입되며 한반도의 군사화 상황과 중국군의 병력 규모로 볼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상기한 ‘반접근 전략’은 한반도 유사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미 해군의 진입을 억지·지연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전투력이 필요한데, 이에선 중국 공군 및 해군 항공병의 전폭기·전투기 대대, 잠수함 전력, 주요 수상함의 대함 능력 혹은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관련, 중국의 공격용 핵잠수함(SSN)과 전략 미사일 핵잠수함(SSBN)의 모항은 칭다오(靑島)이며, 최근 북해함대의 공격용 핵잠수함 수는 3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53)</sup> 향후 중국이 항모전단을 운용하는 단계에 이를 경우 서해와 동중국해가 주 작전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라오닝(바라그)호는 2011년 8월에서 2012년 5월 초까지 총 6회의 시험항해를 실시하였다.

중국은 전역급 전투력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경지역에서의 돌발사태(‘突發事件’)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sup>54)</sup> 이로 인해 지상군 위주의 지휘체계 및 군지도부 구성, 군사 독트린 및 군 구조, 그리고 군사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합동성’(聯合能力)이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군의 주력인 지상군의 경우, 현재 7개 대군구(MR) 하에 총 18개 집단군(GA, 아국의 ‘군단’에 해당)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중 7개 집단군은 신속대응군이며 4개(베이징군구 38군, 27군; 선양군구 39군, 지난군구 54군)는 중국의 동부와 동북부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sup>55)</sup> 대군구 사령관은 육군, 부사령관은 (해당시) 공군과 해군 장성이 보임되며 집단군 편제는 기본 3개 사단 및 다양한 대대급 특화부대(예, 포병, 대공, 공정, 항공)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 집단군 간 훈련, 대군구 간 합동 훈련 및 타 대군구 내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타 군과의 ‘합동성’ 수준 외에도 보다 현실적인 훈련, 원교(院校) 교육 내용 및 통합 군수

53) 이는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2), p. 31의 추정으로서, 사실일 경우 漢급(091형) 핵잠수함 2척과 신형 商급(093형) 핵잠수함 1척일 가능성이 있다.

54) 秦啓文 等, 『突發事件的豫防與應對』(北京: 新華出版社, 2008); 劉源 主編, 『非戰爭軍事行動中的政治工作』(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9) 참조.

55) 이는 한반도 유사 대비가 아닌 수도방위의 중요성때문이며 과거 소련의 침공에 대비한 부대배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요구되고 있다.<sup>56)</sup>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급 국가’ 혹은 ‘중상급 국가’이다. 다만, 한국은 세계의 주요 강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종합국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내적 밸런싱’과 ‘외적 밸런싱’밖에 없는데, 후자의 대상은 1) 영토 분쟁 혹은 야욕이 없고, 2) 유사시 지원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과 의지(will)가 있고, 그리고 3) 역사적·선협적으로 우리에게 ‘良性’(benign)인 국가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국가는 미국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외에도 한국이 냉전 전(全) 기간 동안 주요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된 연유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외적 밸런싱’의 핵심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의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군사적 대비 외, 양국관계의 개선과 통일 기반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교류·협력’ 및 ‘예상·대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즉, 이중보험(hedging) 전략은 적어도 예측가능한 미래에 한국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은 ‘제한적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거부하고 한반도 혹은 한반도 주변의 소규모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력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현존 군사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상 충돌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은 군사적 도발을 억제·거부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다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E-737), 효과적인 해·공군력(209/214형, F-15K),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전력 및 첨단화된 전투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단, 중국의 ‘양성(良性)과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판명되지 않고 특히 중국이 전역급(戰役級; campaign-level)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경우,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 강화가 ‘한국의 가치’를 제고시

56) 중국군 지상군에 대한 가장 종합적이고 권위있는 연구는 Dennis J. Blasko, *The Chinese Army Today: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Second ed. (London: Routledge, 2012) 이다.

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볼 것인가의 논쟁이 있다.<sup>57)</sup> 경험적볼 때, 미·중간 갈등관계 시 중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관계·동맹 강화를 ‘대중국 봉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낳고 있다. 역으로 한국이 과거 진보 정부와 같이 미국과 협력적이나 보다 독자적인 동맹관계를 추구할 경우, 보다 ‘등거리’ 혹은 독립적인 위상을 갖게 되나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 없는 소외국가로 전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한반도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미국과의 협력적 동맹 유지에 한국의 국익을 거양하는 일이다.

#### IV. 결론 및 정책적 고려 사항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반접근 전략’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및 통일한국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비방향은 군사적 대비책 외, 중국과의 쌍무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중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대한반도 역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은 (역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류·협력’과 ‘예상·대비,’ 즉 ‘협력’과 ‘견제’(‘이중보험’[hedging])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면적 대외 협력 추진, 국내 경쟁력 및 정책 체질 개선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의미하며,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는 국가전략은 사상누각임을 주지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방어적 충분성’에 기초한 전력 건설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외에도 향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한국은 중장기적 전략방향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중장기 전략·정책의 맥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기회비용 감

57) 이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논쟁으로서, 한국은 중국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갖는 동시에 “미국과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중국의 존중을 받는다”는 주장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빅터 차(Victor Cha)이다. 빅터 차, “한국, 미국과 밀접해야 중국이 대적,” 『중앙일보』, 2011년 9월 7일자 참조. 최근 한·미·일 군사협력강화로 인한 중국의 우려에 대한 분석은 조영남, “한·중 관계의 발전추세와 전망”(2011년), pp. 106-108 참조. 국제 무역 및 금융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을 비교·분석한 글로는 김소영,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한가, 중국이 중요한가?” 『동아일보』, 2012년 4월 10일자 참조.

소 및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전략·정책은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간 조화를 추진하되, 중국의 ‘양성(良性)과 신뢰성’(benign and reliable)이 확인되지 않는 한, 대미 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군사적 대비 측면에서 향후 한국군은 소규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도발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적 역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안보 도전세력에 대비한 ‘소(小) 반접근 능력’을 의미하는 데 단기적으로는 영해상의 소규모 분쟁에 대비한 해·공군력을 보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 방어충분성에 입각하여 한국에 대한 대규모 무력도발을 거부(혹은 도발시 비용을 증폭)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력(예,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 첨단 군사기술, 효과적인 해·공군력)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입·논의되고 있는 E-737 조기경보기, 214형 잠수함, F-15K 전투기, ‘현무’계열 미사일 등은 이와 같은 역지력의 핵심 전력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이 전역(campaign)급 작전능력을 갖춘 역내 주도국가로 변모하는 경우, 역내 및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지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현재의 판단으로 동 상황은 중국의 대미, 대일 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미·일 양국이 중국의 ‘주도국가화’를 기정사실로 여기거나, 중국의 등장에 대해 대처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중국이 역내 주도 국가가 될 경우, 다양한 역내 안보현안에 중국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안정은 큰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중국군의 현대화 및 ‘반접근 능력’의 변화 추이를 정기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역내 다양한 안보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는 동아시아의 주요 안보현안인 미사일 방어(MD) 체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전략적 유연성’, 해상안전, ‘반접근/영역거부 능력’ 등은 역내 각국 및 지역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대외 외교·안보활동의 확대를 기초로 역내 국가들과의 정례 협의, 공동 계획 수립, 연합 훈련 등 군사신뢰구축(MCBM) 및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봉쇄’ 네트워크라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접근 대(對) 전략적 반접근’이라는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추이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끝.

## 참고문헌

- 김소영. “우리에게 미국이 중요한가, 중국이 중요한가?” 『동아일보』. 2012년 4월 10일.
- 김재엽.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연구』. 제19권 제1호(2012년 3월), pp. 187-216.
-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 2000년 이후 전력증강 추이 및 지역적 함의.” 『국방정책연구』. 제73호(2006년 가을), pp. 163-203.
- 배정호·구재회 공편.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_\_\_\_\_.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상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국가전략』. 제17권 1호(2011), pp. 5-37.
- 정의승. 『한반도 미래방위의 지렛대: 한국형 잠수함 KSSX』. 서울: 고려원북스, 2005.
- 정호섭. “반(反)접근·지역거부 대 공·해 전투 개념: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 『STRATEGY 21』. Vol. 14, No. 2 (Winter 2011), pp. 5-32.
- 조영남. “한·중 관계의 발전추세와 전망: 바람직한 중국정책을 위한 시론.” 『국제·지역연구』. 제20권 제1호(2011년 봄), pp. 89-122.
- 차, 빅터. “한국, 미국과 밀접해야 중국이 대접.” 『중앙일보』. 2011년 9월 7일.
- 윤석준. “동남아·서남아·오세아니아의 전략적 딜레마와 해군력 현대화.” 한국해양전략연구소(KIMS) 편. 『2013~2014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4, pp. 241-96.
- 한종환. “중국해군의 잠수함 현대화에 관한 연구.” 『STRATEGY 21』. 통권 제24호(2009년 가을), pp. 55-89.
- 허성필. “주변강대국 잠수함 전력 건설 동향과 발전 추세에 따른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069호, 2005년 8월 8일.
- “중·러 전투기·잠수함으로 해·공군력 강화.” 연합뉴스. 2013년 3월 26일.
- Anderson, Eric C., and Jeffrey G. Engstrom. *Capabilitie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to Carry Out Military Action in the Event of a Regional Military Conflict*. McLean, VA: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March 2009.
- Bader, Jeffrey A. *Obama and China's Rise: An Insider's Account of America's Asia Strateg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2.

- Bateman, Sam. "US AirSea Battle: Countering China's anti-access Strategies." *RSIS Commentaries*, No. 82/2011 (May 19, 2011).
- Bitzinger, Richard A. "AirSea Battle: Old Wine in New Bottles?" *RSIS Commentaries*, No. 159/2012 (August 23, 2012).
- Blank, Stephen. *Shrinking Ground: Russia's Decline in Global Arms Sales*. Washington: The Jamestown Foundation, 2010.
- Blasko, Dennis J. *The Chinese Army Today: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for the 21st Century*. Second ed. London: Routledge, 2012.
- Bussert, James C., and Bruce A. Elleman.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Combat Systems Technology, 1949-2010*.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1.
- Cole, Bernard D. *The Great Wall at Sea: China's Navy in the Twenty-First Century*. 2nd ed.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10.
- Collins, John M. *Military Strategy: Principles, Practices, and Histo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DC: Brassey's, 2002.
- Courmont, Barthelemy. "Territorial Disputes and Taiwan's Regional Diplomacy: The Case of the Senkaku/Diaoyu/Diaoyutai Islands." *Journal of Territorial and Maritime Studies* (Seoul). Vol. 1, No. 1 (Winter/Spring 2014), pp. 113-34.
- Danielsson-Murphy, Lotta, ed. *The Balance of Air Power in the Taiwan Strait*. Arlington, VA: US-Taiwan Business Council, May 2010.
- Dittmer, Lowell. "Taiwan's Security in an Era of Cross-Strait Detente." Paper presented at the Smart Talk Seminar, East Asia Institute (EAI). July 15, 2011.
- Elleman, Bruce A, Stephen Kotkin, and Clive Schofield, eds. *Beijing's Power and China's Borders: Twenty Neighbors in Asia*. Armonk, NY: M.E. Sharpe, 2013.
- Fisher, Richard D. Jr.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Building for Regional and Global Reac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 Erickson, Andrew S., and David D. Yang. "Using the Land to Control the Sea? Chinese Analysts Consider the Antiship Ballistic Missil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Autumn 2009), pp. 53-86.
- Freise, Christopher. "By Invitation Mostly: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US Security Presence,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RSIS Working Paper*, No. 247(August 28, 2012).

- Friedberg, Aaron L.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1.
- Glosny, Michael A. "Getting Beyond Taiwan? Chinese Foreign Policy and PLA Modernization," *Strategic Forum*, SF No. 261 (January 2011).
- Goldstein, Avery. "U.S.-China Interactions in Asia." In David Shambaugh, ed.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3, pp. 263-91.
- \_\_\_\_\_, and Edward D. Mansfield. "Peace and Prosperity in East Asia: When Fighting Ends," *Global Asia*, Vol. 6, No. 2 (Summer 2011).
- Hagt, Eric, and Matthew Durnin. "China's Anti-Ship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s and Missing Links,"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Autumn 2009), pp. 87-117.
- Hallion, Richard P, Roger Cliff, and Phillip C. Saunders, eds. *The Chinese Air Force: Evolving Concepts, Roles, and Capabilitie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2.
- Herszenhorn, David M. "China's New Leader, Visiting Russia, Promotes Nations' Economic and Military Ties." *New York Times*, March 22, 2013.
- International Crisis Group.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I): Regional Responses*. Asia Report No. 229, July 24, 2012.
- \_\_\_\_\_. *Stirring Up the South China Sea (I)*. Asia Report No. 223, April 23, 2012. International Macroeconomic Data Se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10.
- Jacques, Martin. "The Case for Countering China's Rise." *New York Times Book Review*, September 23, 2011.
- Kim, Taeho. "China's Anti-Access Strategy and Regional Contingencie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and Korean Securit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4, No. 3 (September 2012), pp. 355-71.
- Kissinger, Henry.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2011.
- Lawrence, Susan V., and David MacDonald. U.S.-China Relations: Policy Issues. CRS Report for Congress R41108, August 2, 2012.
- Lieberthal, Kenneth, and Wang Jisi.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Monograph Series, No. 4 (2012).
- Loo, Bernard F. W. "Chinese Military Power: Much Less than Meets the Eye." *RSIS Commentaries*, Number 111 (September 9, 2010), pp. 1-2.
- Luttwak, Edward N. *The Rise of China vs. the Logic of Strategy*. Cambridge,

-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 McDevitt, Michael. "PLA Navy Build Up and Implications for US Strategy and for the US Navy." In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KIMS), ed. *PLA Navy Build-up and ROK Navy-US Navy Cooperation*, Seoul: KIMS, 2009.
- McVadon, Eric A. "The Chinese Military and the Peripheral States in the 21st Century: A Security Tour d'Horizon." In Larry M. Wortzel, ed. *The Chinese Armed Forces in the 21st Century*. Carlisle,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December 1999, pp. 7-87.
- Mearsheimer, John J. "The Rise of China and the Fate of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Question: Balancing Theory and Practice" hosted by the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IFANS), Shilla Hotel, Seoul, October 7, 2011.
- Medeiros, Evan S., "The New Security Drama in East Asia: The Responses of U.S. Allies and Security Partners to China's Rise."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2, No. 4 (2009), pp. 37-52.
- Moss, Trefor. "Regional Matters: Regional Overview--Southeast Asia." *Jane's Defence Weekly*. May 6, 2011.
-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NIDS China Security Report 2012*. Tokyo: NIDS, 2012.
- Paul, T. V. *Asymmetric Conflicts: War Initiation by Weaker Powe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Pei, Minxin. "An Assertive China the 'New Normal'?" *The Diplomat*. November 24, 2010. Available at [www.thediplomat.com](http://www.thediplomat.com).
- Peng, Guangqian, and Yao Youzhi, eds. *The Science of Military Strategy*. Beijing: Military Science Publishing House, 2005.
- Raska, Michael. "Decoding the Air-Sea Battle Concept: Operational Consequences and Allied Concerns." *RSIS Commentaries*. No. 158/2012 (August 23, 2012).
- Saunders, Phillip C., Christopher D. Yung, Michael D. Swaine, and Andrew Nien-Dzu Yang, eds. *The Chinese Navy: Expanding Capabilities, Evolving Roles*.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2011.
- Scobell, Andrew, and Larry M. Wortzel, eds. *Shaping China's Security Environment: The Role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Carlisle, PA:

-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ctober 2006.
- Shambaugh, David. "Tangled Titans: Conceptualizing the U.S.-China Relationship." In David Shambaugh, ed. *Tangled Titan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3, pp. 3-26.
- Singer, Peter W. "Separating Sequestration Facts from Fiction: Sequestration and What It Would Do for American Military Power, Asia, and the Flashpoint of Korea." September 23, 2012.  
[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2/09/23-sequestration-defense-singer](http://www.brookings.edu/research/articles/2012/09/23-sequestration-defense-singer).
- Smith, Paul J. "The Senkaku/Diaoyu Island Controversy: A Crisis Postponed."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66, No. 2 (Spring 2013), pp. 27-44.
- Supriyanto, Ristian Atriandi. "U.S. Pivots to Maritime Southeast Asia." RSIS Commentaries, No. 86 (May 22, 2012).
- Sutter, Robert. *Taiwan's Future: Narrowing Straits*. NBR Analysis, May 2011.
- Swaine, Michael D. et al., *China's Military and the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3.
- \_\_\_\_\_. "Chinese Views Regarding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China Leadership Monitor CLM*. No. 41 (June 6, 2013).
- \_\_\_\_\_. "Part Four: The Role of Military in Foreign Crise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7 (April 30, 2012).  
[www.hoover.org/publications/china-leadership-monitor](http://www.hoover.org/publications/china-leadership-monitor).
- \_\_\_\_\_. "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LM*, No. 36 (January 6, 2012).
- \_\_\_\_\_. "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with M. Taylor Fravel). *CLM*, No. 35 (September 21, 2011).
- \_\_\_\_\_. "Part One: On 'Core Interests'." *CLM*, No. 34 (February, 22, 2011).
- \_\_\_\_\_. "Perceptions of an Assertive China." *CLM*, No. 32 (May 11, 2010).
- Tellis, Ashley J., and Travis Tanner, eds. *China's Military Challenge, Strategic Asia 2012-13*. Seattle, WA: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2012.
-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 \_\_\_\_\_.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2.

-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2.
- \_\_\_\_\_.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1.
- \_\_\_\_\_.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Washington, DC: DOD, 2014.
- \_\_\_\_\_. *Quadrennial Defense Review*.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0년 2월.
- Yamaguchi, Noboru, "A Japanese Perspective on the Senkaku/Diaoyu Islands Crisis." In The East Asia Program, ed. *Tensions in the East China Sea*. Sydney: The 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 December 2013.
- 秦啓文 等. 『突發事件的豫防與應對』. 北京: 新華出版社, 2008.
- 軍事科學院戰略研究部. 『戰略學』.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1.
- 劉源 主編. 『非戰爭軍事行動中的政治工作』.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2009.
- 沈克勤. 『南海諸島主權爭議述評』. 臺北: 臺灣學生書局, 2009.
- “中國從俄羅斯購入24架蘇-35和4艘潛艇.” 多維新聞. (<http://military.dwnews.com>). 2013년 3월 24일.

Abstract

**China's Military Rise and  
Regional Maritime Security  
- Its Neighbors' Strategic Calculations and  
Various Contingencies -**

Kim, Taeho \*

While China's military rise is an issue of growing importance to regional security,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it is not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per se, but its capacity to project and sustain power along and beyond its borders--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to resolve forcefully its outstanding maritime disputes and various contingencies.

This essay argues that China's "anti-access capability"--a U.S.-coined term originally developed for a Taiwan contingency--is equally applicable to other major regional cases such as the Spratly disputes and a North Korean contingency. Furthermore, notwithstanding China's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and deploy various types and classes of weapons/platforms, it is the Russian systems and technologies that are most capable and thus likely assigned to the highest mission-critical areas. In assessing China's current and likely future military capability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following:

- There exists asymmetry of military capability between China and its weaker neighbors. While the PLAN is weak in several important aspects, for instance, many of its neighbors' navies are weaker still.
- Some have argued that China's foreign policy behavior apparently

---

\* Professor of Hallym University and Director of Hallym Institute for Taiwan Studies (HITS);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became more "assertive" in 2009-2013, but it is wiser to keep in mind that China has almost always been assertive and aggressive when it comes to what China defines 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ssues" as well as its newest "core interests."

-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it is the function of U.S. presence in the theater--in the form of overseas bases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and the PLA's own limitations to project and sustain power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at have largely prevented armed.
- While Taiwan remains the *idee fixe* of China's diplomacy and military, it is and will be a tough nut to crack. China's recent creeping attempts for economic integration with Taiwan should be seen in this context.
- China and Japan, the two regional heavyweights and traditional rivals, will likely have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is replete with difficulties and tension. China's unilateral announcement of its ADIZ in November 2013 as well as the occasional yet persistent disputes with Japan over the Senkaku/Diaoyudao/Diaoyutai islands are only the latest manifestation of this deeper and difficult relationship.
- For Korean security it is imperative to take into account the geostrategic and historical factors. On top of the exist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ROK should be able to employ a) hedging strategy, b) "limited defense sufficiency" strategy, and c) rock-soli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Key words:** regional security, rise of China, East Asia's maritime security, anti-access/area denial strategies, South China Sea, Taiwan issue, East China Sea, Korean Peninsula, power transition